

전일동향

전일대비 33.80원 하락한 1,449.80원에 마감

24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33.80원 하락한 1,449.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30원 상승한 1,484.90원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환율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하락 전환했다. 달러화 유입 대책 및 국민연금의 환헤지 준비 등에 환율은 낙폭을 확대하며, 1,449.8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35.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0.85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84.90	1484.90	1445.60	1449.80	1460.60
엔화	929.57	931.40	928.21	930.48	-	
유로화	1707.83	1709.02	1706.34	1707.14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	-4.03	-10.21
결제환율(수입)	-0.03	-3.1	-8.34	-16.33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외환당국 경계심리에...1,44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70)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49.80) 대비 4.70원 하락한 1,443.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당국 개입 경계감 등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환율은 급락했다. 환율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경우, 기관투자자의 롱스탑 물량과 수출업체의 매도 물량이 출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4만건으로 예상치(22.4만)를 하회하며,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엔화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일본 재무상의 발언 등 당국의 반복적인 구두개입성 경고에 강세 흐름을 지속했다. 위안화도 위안화 표시 채권과 대출 시장 급성장 등에 강세를 보였다. 이에 달러화는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 고용 경기에도 엔화 강세에 소폭 약세를 보이며, 0.02 하락한 97.93을 기록했다. 금일 환율은 당국 경계감 및 아시아 통화 강세에 등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일 낙폭 일부 되돌림 및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에 따른 저가 매수세는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39.75 ~ 1452.75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225.0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70원 ↓
	■ 美 다우지수 : 48731.16, +288.75p(+0.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32.6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531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